

# 충북교육청, ‘수능 응원송’ 자체 제작

김원준, 윤서령 재능기부, 충북예고 학생참여로 제작  
김병우 교육감, 수험생들의 열정과 희망을 응원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김병우)이 제작한 이번 응원송은 도교육청 홍보대사인 김원준 신안산대학교 공연음악과 교수가 프로젝트의 음악감독을 맡아 직접 작사·작곡·편곡을 했다. 홍보대사인 트로트 가수 윤서령 학생(충북예고 3학년)이 노래를 불렀다. 이번 ‘드림즈 프로젝트’는 수험생들을 응원하기 위한 재능기부로 모두 진행됐다. 김원준 교수가 만든 ‘드림즈’라는 곡제목은 ‘Dream’과 Z세대를 말하는 ‘Z’를 합성한 단어로, 꿈을 가진 Z세대들에게 보내는 긍정의 메세지가 담겨 있다. 안무는 인천아시아게임과 평창올림픽 안무 감독을 맡은 강옥순 신안

산대교 실용댄스와 교수의 작품이다. 안무 이름도 곡제목 ‘DREAMZ’에서 영감을 받아 ‘DREAM CATCH DANCE’로 했다. 안무의 구성은 마치 꿈을 잡기 위해 파도를 이기며 힘써 노를 저어가는 모습을 담았다. 김병우 충청북도교육감도 충북예고 학생들과 함께 안무에 참여해 수능 응원에 힘을 실었다. 긍정의 힘이 담긴 가사와 중독성 강한 멜로디, 그리고 독창적인 안무로 많은 사람들에게 히트할 것으로 예상되고, 실제로 응원송 제작에 참여한 충북예고 학생 사이에선 버스킹도 계획하고 있다고 했다. 충북교육청은 응원송 ‘드림즈’와 함께 이벤트도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충북교육청 수능 응원송 ‘수능생 헬라 이자이’(김병우 충청북도교육감, 충북예고 학생들과 함께 안무 참여 모습)

오는 18일까지 충청북도교육청 유튜브 채널에서 수험생 응원영상에 ‘좋아요’를 누른 뒤 유튜브 게시물에 응원 댓글을 달고 SNS 등에 유튜브 게시물을 ‘공유’하면 된다. 충청북도 도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자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서 100명에게 소정 경품을 지급할 계

획이다. 김병우 충청북도교육감은 지난 1일 월례회의에서 수험생들에게 “무엇보다 미래의 꿈을 위해 달려온 수험생들의 열정과 희망을 모두의 마음을 모아 응원합니다”고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박철우 기자

## 세종교육청, 학생 정신건강 회복프로그램 운영

‘좋은 친구 되기’서로의 마음을 알아주는 행복한 학급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은 오는 12월 22일까지 신체뿐만 아니라 심리·정서·사회성 건강을 위해 ‘학생 정신건강 회복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정신건강 위기학생만을 지원하던 방식에서 더 나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심리적으로 위축된 아이들의 마음을 활짝 펴고, 서로 사랑하는 친구 사이로 행복한 학급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교육회복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세종학생정신건강센터 등 6개 기관의 전문가가 학교(24교, 131학급 약 2615명)를 방문해 ‘좋은 친구 되기’라는 주제로 총 12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주요 프로그램은 ▲세종학생정신건강센터(센터장 김현진)의 ‘나 일락’ 정서조절능력향상, ‘마음 (MAEUM) 프로그램’ 트라우마 경험자 심리회복, ‘MAP’ 마음건강 향상 ▲삼성마음그린정신건강의학과 의원(원장 최정미)의 ‘마음 근육 헬스 트레이닝’ 긍정성 회복프로그램, 굿바이 우울, 친구가 좋아요 ▲한국평생교육연구원(원장 유경희)의 ‘사랑하는 우리사이’ 성격유형 알고 서로 친해지기, ▲세종건강증진연구소(소장 이태성)의 스트레스는 가라 UP, 자기 표현하기, 어떻게 하면 좋은 친구를 만날 수 있을까? ▲세종심리검사원(소장 임현아)의 ‘내가 나를 알아’



자기 알기 프로젝트 ▲세종정신건강복지센터(센터장 조철현)의 ‘마음이 놀자’ 자존감 및 토래 관계 향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학교별 특성에 맞게 운영된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고운초 5학년 문지우 학생은 “대인관계를 잘 만드는 방법을 쉽게 이해했고,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 좋았다”며, “앞으로 친구들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더 잘 다뤄겠다”고 말했다. 최교진 교육감은 “이번 정신건강 회복프로그램을 계기로 심리적으로 어려운 학생은 없는지 서로 살펴주고, 따뜻하고 세심한 배려가 깃든 행복한 학교생활이 기대된다”며, “서로 이해하고 지지하는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교육청은 학생의 정신건강 회복프로그램 이외에도 교직원들의 마음회복을 위한 ‘토닥토닥 힘내요!’를 11월 4주부터 12월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정민준 기자

## 대전 최초 가칭대전둔곡초·중통합학교 신설 확정

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개발에 따른 가칭)대전둔곡초·중신설사업이 지난달 27일 개최된 교육부 정기4차 중앙투자심사위원회 보고 결과 ‘적정’ 결정을 받아 학교 설립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고 1일 밝혔다. 가칭)대전둔곡초·중 신설사업은 지난 4월 29일 진행된 2021년 정기1차 중앙투자심사 결과 ‘통합학교 운영계획 수립 보고 후 추진’ 의견으로 조건부 승인 결정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대전교육청은 5월부터 관련 부

서 T/F를 구성해 전문가들의 활발한 논의를 거쳐 통합학교 운영계획을 검토하고, 타시도 통합학교를 방문해 현장의견을 청취하는 등 내실 있는 운영계획 수립을 위해 노력했다.

가칭)대전둔곡초·중학교는 대전 최초로 신설되는 초·중 통합학교로 모두가 ‘하나의 학교 구성원’이라는 목표를 갖고, 학교급간 공유시설과 교류공간을 폭넓게 마련하고, 학생 발달단계에 따른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정민준 기자

## 제39회 광주교직원예술제 전시회 개최

광주시교육청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광주 시민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하기 위해 ‘제39회 광주교직원예술제 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전시회는 ‘기다림’을 주제로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1층 전시실에서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11월 5일까지 운영됐다. 전시회에는 소박하지만 소중했던 일상의 회복을 바라는 마음을 담아 광주 관내 교직원이 출품한 문인화, 한국화, 서양화, 사진, 영상, 조소, 서각, 지수, 공예 등 70여 점이 전시됐다. 올해로 39회째를 맞은 광주교직

원예술제는 교직원들의 창작을 향한 열정의 결실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예술로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교육 실천을 통해 학생들의 예술적 감수성을 개발하고, 문화적 소양을 갖춘 미래형 인재로 자라게 하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휘국 교육감은 “팬데믹 시대를 잘 헤쳐 나가고 있는 광주 시민들에게 전시회를 통해 위로와 희망을 전하고 싶었다”며 “이번 전시회를 통해 정서가 더욱 풍요로워지고, 행복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영준 기자

##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직원 갑질과 부당업무지시 ‘과거보다 개선됐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갑질과 부당업무지시’ 설문조사 결과를 지난달 31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2020년부터 소속 교직원을 대상으로 해마다 1회 익명 온라인으로 갑질 실태·사례 등을 설문 조사해 그 결과를 공유하고 관련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지난 9월 3일부터 9일까지 소속 교직원을 대상으로 갑질과 부당업무지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14,896명 가운데 80.7%가 갑질과 부당업무지시가 ‘과거와 비교해 개선되었다’고 응답하고, 76.4%가 경기도교육청은 갑질과 부당업무지시의 조직문화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한편 18.1%가 ‘최근 1년 이내 갑질과 부당업무지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3.4%포인트 줄어든 수치다.

갑질 또는 부당업무지시 발생 원인으로 ‘권위주의적 조직문화’(34%), ‘갑질을 유발하는 제도상의 허점’(19%) 등을 꼽았다.

갑질 형태는 ‘비인격적 대우’가 37.7%로 가장 높았고, 갑질 사례로는 ‘휴가·출장·유연근무 사용 제

한’ 17.1%, ‘모욕감을 유발하는 욕설·폭언’ 16.7% 순으로 나타났다. 대처방법으로 ‘그냥 참았다’가 63.5%로 가장 많았으며, 그 이유로 ‘불이익 등 2차 피해 우려’ 30.2%, ‘원활한 관계 유지’ 24.2% 등을 꼽았다.

응답자들은 ‘조직문화 개선’(72.8%), ‘소통 기회 마련’(62.3%)으로 갑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답했다.

또 갑질 근절 대책으로 ‘기관장의 강력한 개선 의지’(20.9%)와 ‘구성원의 개선 노력’(18.3%)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조직문화 개선방법으로 ‘소통을 위한 간담회와 토론회’(33.7%), ‘존중 어 사용 등 캠페인 실시’(26.9%)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도교육청은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갑질 근절을 위한 제도를 보완하고, 갑질 예방교육과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다양한 교육·홍보 자료를 제작·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그동안 유형별 사례를 모아 갑질과 부당업무지시 근절을 위한 사례집을 제작했고 다음 달 배포할 예정이다.

/김지우 기자



▲전진서 부교육감(좌측 2번째)과 유은혜 부총리 및 관계공무원이 수능시험장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 충남교육청, 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준비상황 점검

무결점 수능을 위한 준비 매진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지난 10월 20일부터 11월 3일까지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는 7개 시험지구, 56개교에 대한 수능시험장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일반시험장 856실, 별도시험장 14실에 대한 이번 점검은 수능시험 전 사전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원활한 수능시험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으로 교육부 지침에 따른 지진대비·화재대비·옥의 시설물 안전·한파대비 등 중점 사안을 반영한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코로

나19 전염병 상황에 대한 방역과 시험장 시설 운용 점검, 담당자 연수, 자가격리(확진자) 관리 등 수능시험 전 종합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한편, 교육부에서도 2일 시험장 학교인 공주고등학교에 유은혜 부총리를 비롯한 교육부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현장방문이 이뤄졌으며, 일반시험실, 보건실, 방송실 등 수능시험을 위한 관련 시설을 직접 점검 후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김지철 교육감은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관련 준비와 점검에 최선을 다하고 유관기관 협조를 통해 무결점 수능을 향한 노력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성진 기자

### 현산가금현 작가의 세번째 시집 『저 멀리 보이는 너』

사람은 성실할수록 자신감을 얻게 된다. 성실할수록 태도가 안정되어 간다. 성실할수록 정신을 자각하게 된다. 성실할 때에만 자기가 엄연히 이 세상에서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을 갖게 된다.

‘한 잔 술이 그리워서가 아니라’ 사람이 그리운 것이다.

판매처: 전국 대형서점 및 네이버쇼핑(G마켓, 쿠팡, 위메프, 티몬, 로켓와우, 보리보리, 밀크북, 에스더블유 등), 인터파크, 교보문구, 예스24 등

가격 10.000원 / 구입문의:080-631-8114